

유엔 위안부 재합의 권고에 버티는 일본

고문방지위 보고서 평가 절하 이례적으로 반문문 제출 방침 교과서 개입·언론 자유 통제 등 유엔 지적에 사사건건 반박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일일이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까지 자국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자 합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보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

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고문방지위원회 권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반문문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는 점을 지적하고 한일 합의 개정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유엔 관련 기구의 권고에까지 반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달 27일 발언도 구설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당시 아베 총리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구테흐스 총장이)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 측은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

해 오히려 유엔과의 견해차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유엔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보고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정정·삭제를 촉구하는 반문문을 유엔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또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억측"이라고 반발했으나 케이 보고관은 "해석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비판은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유엔 기구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케이 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등 역사교육에 정부 개입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검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4조 철폐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출판된 교과서의 경우 한 종류에만 위안부 기술이 있다"며 "15년 전에는 5~6종류에 달했던 만큼 큰 변화"라고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했다. 국가와 지역별 인권신매와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상황을 조사해 발표한다.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유엔의 전체의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것이지만 '도둑 제 말 저런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간사장은 "그동안은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 중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여 왔다"고 지적하고 문전 막대식 반론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88 명군 당태종 이세민

이세민(李世民, 599-649)은 고조 이연의 차남으로 부친을 도와 당나라 건국에 크게 기여했다. 후일 현무문의 정변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가 되었으나 선정을 베풀어 왕조를 반석에 올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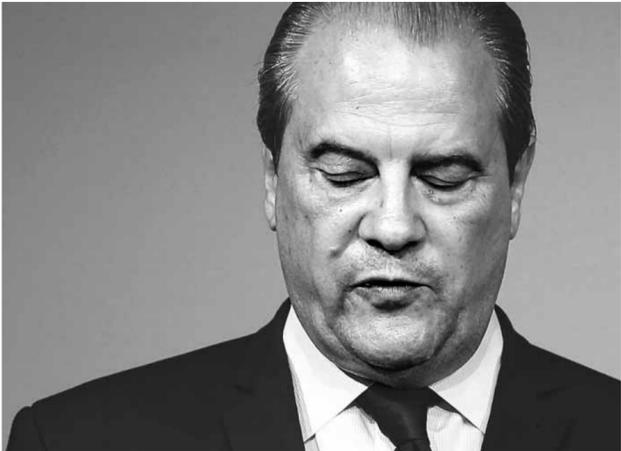
수양제 말기 고구려 원정 실패, 대운하 공사 등으로 천하 민심이 크게 동요했다. 강남의 강도로 내려간 수양제가 618년 우문화급에게 살해당했다. 이말, 왕세충, 두건덕 등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세민은 진왕의 군사령관인 부친을 설득해 유명한 진왕 거병을 단행했다. 수도 장안을 장악하고 당나라를 건국했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이말, 왕세충, 두건덕이었다. 이말은 왕세충에게 패해 당에 귀

‘왕자의 난’ 약점에도 선정 베풀어 추앙

순 후 배신을 도모하다가 처형됐다. 620년 낙양의 왕세충을 공격했다. 왕세충은 두건덕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건덕은 1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원했다. 이세민의 뛰어난 지휘로 왕세충, 두건덕 연합군을 물리쳤다. 621년 두건덕을 격파해 처형하고 왕세충도 낙양에서 항복했다. 이세민의 공이 너무 커 황태자 건성에 준하는 천책상장(天策上將)의 지위를 주고 우대했다. 이에 따라 후계 갈등이 심화되었다.

626년 6월 왕궁의 복문 현무문에서 진왕 이세민은 형과 동생을 살해했다. 부친 고조가 양위하고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의 치세는 후일 정관정치(貞觀之治)로 높이 평가되었다. 현무문의 비극을 반성하고 올바른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때였다. 그가 네 살때 관상쟁이가 그의 얼굴을 보고 부친 이연에게 "공께서는 귀인이시니 귀한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며 세민을 보고 스무살 성인이 되면 세상(世)을 구하고 백성(民)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가 명군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수양제 말기 천하의 혼란을 극복해 정관 성세를 구현했기 때문이다. 현무문의 비극은 아킬레스건이었다. 자신의 과오를 끊임없이 반성해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특히 무장으로 출발해 위대한 문치시대를 열었다. 정관의 시기를



마크롱, 총선 압승...사회당 존폐 기로 1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투표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연합의 정당득표율은 32.32%로 최종 집계됐다. 일간 르몽드는 중도신당 연합의 예상 의석수를 415석에서 최대 455석으로 전망했다. 같은 날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떠나는 에마누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직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당의 장크리스토프 캄발레리 서기장(당대표), 사회당과 좌파연대는 9.51%를 득표해 전례 없는 참패에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부딪혔다. /연합뉴스

중국 내 북한 노동자 9만명...대북제재에 술렁이는 단둥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 하원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재하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9만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12일 "동북3성 최대 접경도시 단둥(丹東)에 많은 북한인들이 강을 건너와 일하고 단둥 사람들도 강 건너에서 무역 기회를 찾는다"며 "이

런 경제무역과 인적교류는 개혁개방 이후 중단된 적이 없으나 핵개발이 불거지면서 단둥이 큰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 국가여유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차 핵실험이 실시된 2006년 5만764명, 김정일이 집권한 2012년 7만9600명, 2015년 9만4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연간 총수입이 수십

억 위안(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건군절에 300~400개의 대포를 발사해 진정한 불바다를 보여줬다"며 "미국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 들어오고 미·북이 서로 독한 발언을 주고받는 등 북핵문제가 가장 위험한 시기에 도달한 듯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의 성실성과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중국에서 외화벌이는 중단 없이 진행 중이다.

자오칭하이씨는 "북한 노동자들의 자질이 좋고 규칙을 잘 지키며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선호한다"면서 "북한 노동자 인건비가 낮아 원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리사오더(李紹德)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취업비자 대신 '도강증'이라 불리는 단기통행증으로 머물고 있다"며 이는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 20층 중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 매가 1억1천(용5천)

010-6834-4600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상무지구 상가 매매

10층 중 6층 (19평)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북구 중흥동 모아A.P.T

전대 정문 2분 .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깔끔)

▶ 매가 2억4천(용 1억6,500만)

010-6832-97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주북구 신안동(무인텔)
토지 366평, 건 986평
▶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남구 서동 (상가주택)
토 78평, 건11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 감정가 5억2천 → 3억6천

□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이상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10평, 월세 120 이상
▶ 2억6천 → 1억2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 이상
▶ 5억4천 → 2억4천
※ 반값경매, 특수구건, NPL(다수있음) ※

□ 나주시 송월동 (근린시설)
토지 2563평, 건 3549평
▶ 감정가 161억 → 최저가 37억

□ 천안시 서북구(근린시설)
토 120평, 건 300평
월세 400 이상
▶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8억7천

□ 청주시 흥덕구 (근린시설)
트 369, 건 2011평
웨딩홀 건물, 위치 아주 좋음
▶ 감정가 80억 → 최저가 51억

□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12평, 건 1378평
지상 11층 오피스텔 건물임
▶ 감정가 46억 → 최저가 32억

구분 상가 (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 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명수), 월수익 100만원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동구 산수동 (다가구 원룸동)
토 83평, 건물 145평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5천
3. 남구 서동 (상가주택)
토 78평, 건11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 감정가 5억2천 → 3억6천
4.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5.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이상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6.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10평, 월세 120 이상
▶ 2억6천 → 1억2천
7.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 이상
▶ 5억4천 → 2억4천
※ 반값경매, 특수구건, NPL(다수있음) ※

- ①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②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되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텝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풍암동 풍암3차 대주아파트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2,300만 → 최저가 1억5,600만

▶ 북구 윤암동 벽산블루밍메가시티 (분양면적 49평)
감정가 3억5천만 → 최저가 2억4,500만

▶ 광산구 수원동 우미리아파트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3억3천 → 최저가 2억3천2백

010-7384-7800 010-6670-9800